

광주·전남 우수조달물품 4.5% 뿐

올해 선정 197개 중 9개 대부분 신규·벤처기업 혁신성장 선도사업은 없어

전남지역 2개 벤처기업을 포함한 66개사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합평군 해보면 '메이크앤 플러버'가 조달청 '2019년 제3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해 지난 30일 지정증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메이크앤'과 '플러버'는 모두 벤처기업으로 건설환경 분야 우수제품에 선정됐다. 메이크앤은 '회전 앵커 분질식 교량아이스장치' 등 11종 모델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

난해 특허를 취득하고 올해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을 받았다. 탄성포장재를 주력 품목으로 내세운 플러버 역시 3개의 특허와 성능인증을 받았다. 플러버는 이음매 접합부를 갖는 시트형 탄성포장재를 출품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3월 2개 ▲6월 5개 ▲8월 2개 등 총 9개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197개의 4.5%에 해당한다. 회사의 특징별로 보면 '신규·벤처기업'이 6개로 가장 많았고 ▲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 2개 ▲여성 기업 1개로 분류됐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우수제품 지정심사에는 239개 제품이 출품돼 66개가 합격해 27.6%의 통과율을 보였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수출·고용 등 실적이 좋을 때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조 7000억원으로, 조달청 측은 이들 제품을 통해 연간 1400억원 이상의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우수제품별 연평균 매출액은 2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의 혁신성,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 여부를 평가해 선정된다. 이번 선정 제품들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쳤다. 제품 특징별로 보면, 창업·벤처기업 제품이 37개(56%)로 가장 많았고 ▲혁신성

장 8대 핵심 선도사업 12개(18%) ▲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11개(17%) ▲ 여성·장애인기업 6개(9%) ▲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2개(3%)가 뒤를 이었다.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분야를 말한다. 광주조달청 관계자는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후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증가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조달물자의 기술개발과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8.53 (+22.84)	↑ 금리(국고채 3년)	1.24 (+0.01)
↑ 코스닥	629.31 (+9.29)	↓ 환율(USD)	1208.20 (-7.40)



광산구 고려인마을서 사랑나눔 봉사활동

한전 광주전남본부·전력노조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임철원)와 전력노조 광주전남전력지부(위원장 고희수)는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사합동 광산구 고려인 마을 사랑나눔 봉사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나눔의 정을 공유하기 위해 한전 광주전남본부 사회봉사단이 광산구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쌀 등 사랑의 물품을 기증하고 미취학 어린이들과 추석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가졌다. 광산구 고려인 마을 주민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전과 함께 따뜻한 봄을 나눌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려인은 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한민족 또는 그들의 자손을 칭한다. 조상의 땅 한국으로 돌아와 뿌리내리고자 했던 이들은 현재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 5000여명, 경기도 안산 맛골마을에 1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철원 본부장과 고희수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하나되어 2019년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이해를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창출하는 광주전남본부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일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한 달도 안 돼 4000억원 넘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권이 일본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에 준 금융지원 규모가 한 달도 안 돼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부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는 행들이 운영하는 '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 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170건에 달했다.

이 중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는 102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8건은 협력업체 등 간접 피해기업이다. 은행 신고센터에 찾아가 상담 신청을 하고 지원받은 사례, 별도 센터 상담을 받지 않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받은 실적은 모두 합치면 기업 226곳이 4443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접 피해 기업 194곳이 총 3768억원을 지원받았다. 단순평균을 내면 기업당 지원 규모는 약 19억4000만원이다. '대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15곳은 291억원, '대일본 수출업체와 협력업체' 9곳은 348억원, '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을 받은 기업 8곳은 36억원의 도움을 받았다.

금융지원 규모는 은행권이 피해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지원, 금리 감면 등으로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집계 대상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국책은행이 포함됐고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제외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전남대병원에 아동 환아복 600벌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3일 오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 아동 환아복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 국윤 전남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를

통해 이번 '지역 아동 환아복 지원'에 동참했다. '하루'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으로 디자인한 환아복을 지원해주는 캠페인으로 광주은행은 이번 전달식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어린이병동에 1000만원 상당의 환아복 600벌을 후원하고, 앞으로 광주 소재 어린이병원에 추가로 후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환아복 지원 사업은 광주은행

기부금과 임직원 성금을 더해 진행하는 사회공헌행사로 뜻깊은 의미가 더해졌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힘들게 입원생활을 이어가는 지역의 아이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병마와 싸워 이겨내 반드시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차범근·손흥민 댄 레버쿠젠과 파트너 계약

금호타이어가 차범근·손흥민이 뛰었던 독일 명문 축구구단 레버쿠젠과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금호타이어는 독일 명문 축구구단 바이엘 04 레버쿠젠과 2020/2021 시즌까지 2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레버쿠젠 홈구장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어레나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과 루디 펠러 바이엘 04 레버쿠젠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금호타이어는 선수 유니폼 소매, 홈구장 리그 경기 중 LED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브랜드를 노출

한다. 1904년 창단된 바이엘 04 레버쿠젠은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5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차범근과 손흥민 선수(토트넘 홋스퍼)를 잇게 한 팀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는 2016년부터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토트넘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NBA 공식 후원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 국제환경산업전 '친환경 전기차' 선보여

쏘울 부스터 EV·니로 EV 전시

기아차가 호남 유일의 국제산업전시회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기술을 선보였다. 기아자동차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쏘울 부스터 EV'와 '니로 EV'를 전시 중이다. 6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ICEF는 호남 유일의 친환경기술 및 환경오염저감 관련 국제산업전시회이다. 기아차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광주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 쏘울 부스터 EV를 내놨다. '쏘울 부스터 EV'는 기아차의 연구개발(R&D) 기술력이 집약된 완성체로 1회 충전만으로 최장 386km를 주행할 수 있다. 최장 주행거리를 위해 기아차는 쏘울 부스터 EV에 기존 쏘울 EV(30kWh) 대비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린 64kWh

고용량·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했다. 또 EV 모델에만 적용된 첨단 주행보조(HDA-Highway Driving Assis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 재출발 기능 등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주행이 가능하다. '니로 EV'는 1회 완충으로 385km를 주행할 수 있다. 저중량·고밀도의 고전압 배터리에 냉각 성능을 높인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했다. 저손실 배어링 등으로 효율을 높인 구동모터와 최적 설계를 통해 크기와 중량은 줄이고 출력은 높은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등을 적용해 우수한 동력성과 효율성도 확보했다. 기아차는 이번 산업전을 통해 친환경 기술력의 집약체인 쏘울 부스터 EV와 니로 EV에 대한 호남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속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욕기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	---	-------------------------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